

정찬주 장편역사소설

개달음의 빛, 청자

천년비원을 품은 강진청자 이야기

신라말 탐진인 장보고는 중국 월주청자 기술을 강진에 들여온다.
이후 고려시대의 강진도공들은 고려청자를 천하제일의 비색(翡色)으로
승화 발전시킨다. 마침내 강진은 세계적인 청자의 성지가 된다.

무령군 입대

명주를 떠난 김시방의 장삿배는 양주에서 한 나절을 머물렀다. 양주에서도 김시방은 관아에서 장보고와 정년에게 젊은 장삿꾼 왕청과 왕종을 소개시켜주었다. 왕씨 두 사람은 명주와 달리 장삿배에 싣고 온 탐진토기들을 보지도 않고 모두 사버릴 만큼 양주에서 재력을 과시하는 장사꾼들이었다. 모두 황해도에서 온 신라인 출신이었다. 당나라에 귀화한 군관 이원좌도 만났다. 김시방은 왕청 형제를 관아 앞의 당전으로 데리고 나가 다음 배에 가져올 탐진토기를 주문받았다.

장보고와 정년은 관아에 남아 이원좌와 얘기를 주고받았다. 이원좌는 양주 절도사 휘하에서 군관을 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을 보고서는 아주 살갑게 맞이해 주었다.

“반갑시다. 내레 고향은 개성이외다.”

칼을 차고 있는 이원좌의 풍모는 위의가 있었다. 키가 크고 코는 주먹만 했다. 큰 키에 비해서 눈과 귀는 아주 작았다. 장보고가 말했다.

“지털은 탐진에서 왔그만요.”

“개성이나 탐진이나 다 같은 나라 땅 아이오. 그라니까니 반갑시다.”

“촌장님 말씀으로는 당에 귀화허셨다고 들었그만요.”

“절도사께서 강권해 할 수 없이 그랬시다. 귀화는 했지만서도 내레 본 태생이 어케 없어지갓시오?”

절도사 휘하에서 군관을 하면 녹봉이 있고, 수십 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지휘권이 생기므로 누구나 욕심 낼만한 자리였다. 또한 무재가 있어야만 인정받는 자리였다. 신라인들이 당나라에 와서 출세하려면 무술이 뛰어나거나 과거에 급제해야만 했는데, 이원좌는 무술로 인정받은 경우였다. 정년이 말했다.

“우리 성님은 활이 뛰어난디 군관님은 으뎌 무술이당가요?”

“내레 주특기는 창술이라요.”

이원좌는 당나라 군사에 대한 정보를 주기도 했다. 장보고와 정년이 듣고 싶었던 정보였다.

“배를 타든 재미는 있갓지요. 하지만 활을 잘 다루는 사람이 무장이 된다면 더 큰 명예가 어데 있갓시오?”

“군관님, 우리덜도 당군에 들어갈 수 있는게라우?”

“여기 서주 무령군에서 몇 년 전부터 군사를 모집해왔시다.”

이번에는 장보고가 물었다.

“여그서 서주는 을매나 가야 헐게라우?”

“서북쪽으로 보름 이상 걸리갓시오.”

“일조에서는 을매나 가야 헐게라우?”

“서남쪽으로 열흘 이상 걸리갓시오.”

보름에서 열흘이라면 별 차이가 없었다. 장보고와 정년은 이원좌에게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는 당전으로 나가 김시방에게 갔다. 왕청과 왕중은 당전이 떠나갈 듯이 큰 소리로 떠들며 이야기했다. 당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떠드는 것을 보면 양주에서 큰 장사꾼임이 분명했다. 당전 하인이 솥불에 찻물을 끓여내고 차를 따르느라고 바쁘게 손을 놀렸다. 김시방이 왕청에게 장보고와 정년을 다시 소개했다.

“우리 배 행수 공사데이.”

“지덜 형지는 양주에서 서주를 땡기면서 물건을 팔고 있습네다.”

정년이 눈을 크게 뜨고 되물었다.

“서주를 가신다고라?”

“그라니까니 오늘 산 탐진토기 중에 일부는 서주 것이라요.”

장보고는 왕청 형제가 이원좌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김시방에게 말했다. 왕청 형제의 소리는 당전 밖이지만 우렁우렁 들려왔다.

“촌장님, 지털은 여그서 내리믄 좋겟그만요.

“일조 신라촌까지 간다 겠다 아이가. 우째 생각을 바꾼기고?”

“방금 이원좌 군관이 서주 무령군에서 군사를 모집한다고 알려주었그만요. 마침 왕청 성제가 양주를 간다고 하니 기회인 것 같그만이라우.”

김시방은 장보고와 정년을 쉽게 포기했다.

“왕청 성제가 서주를 간다 카니 길잡이가 되겠데이. 두 사람은 호위 궁사가 될기고.”

“촌장님, 고맙그만요. 은혜를 반다시 갚겠습니다요.”

“아니데이. 흑수에서 두 사람 덕분에 당구덜을 물리친기라. 그것만도 은혜를 이미 다 갚었데이.”

김시방이 허리에 찬 전대를 열고는 은전 한 줍씩을 장보고와 정년에게 주었다.

“타국 땅이데이. 요긴하게 쓸 데가 있을기라.”

“이번 배에서 번 것을 지덜에게 다 주시는 것이 아닌게라우?”

“허허허. 이번에 이문을 가장 많이 남겼다 아이가. 그렇게네 배를 지켜준 보답이데이.”

장보고와 정년은 의자에서 일어나 바닥으로 나온 뒤 김시방에게 큰절을 했다. 탐진의 정 족장 사랑방에서부터 양주까지 호위하면서 보았지만 도량이 바다처럼 넓은 촌장임이 틀림없었다. 선원들을 대하는 태도나 구출한 신라인들을 일조 신라촌에 보내는 것만 보아도 보통 위인이 아니었다. 왕청 형제가 다시 들어오자 김시방이 웃으며 말했다.

“무신 수작을 허고 오는 기가?”

“아이고, 관아에서 이 군관에게 통행증을 얼뚱 받아가지고 왔시다.”

“서주로 바로 갈긴가?”

“우리 형지는 촌음을 애껴야 허니까네 곱세 바로 가야것시다.”

그제야 김시방이 장보고와 정년을 부탁했다.

“우리 공사를 서주까지 붙여줄턴께 잘 부탁헌데이.”

“은제든 촌장님께서 가져오시는 탐진토기는 다 사겠시다. 서주에서도 탐진토기는 인기가 있으니까네 촌장님이나 지나 좋은 일입네다.”

“바다를 건너오는 것이 원체 위험해서 자꼬 몬 온데이. 장사보다 목심이 중헌기라.”

“촌장님, 이분 공사덜 통행증이 필요허니까네 관아에 또 가서 받아 오갓시다.”

“고맙데이.”

장보고는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난 뒤 김시방에게 말했다.

“촌장님, 고상하시며 바다를 오가지 앓는 방법이 있그만요.”

“그기 뭐고?”

김시방이 고개를 내밀고서 장보고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장보고는 이미 머릿속에 정리해둔바 있어 물 흐르듯 막힘없이 말했다.

“월주가마 도공덜 중에 일부는 신라사람이었지라우. 더구나 노비로 팔려온 양민덜이어서 자나 깨나 고향 생각만 허고 있드랑께요. 모두 다 신라로 델꼬 가서 청자를 맹글몬 일석이조가 아니겠는게라우?

신라에서 청자만 맹글든 판로는 양주에 왕씨 성제도 있고, 등주에서 명주까지 신라방과 신라촌이 곳곳에 있는게 걱정할 거 읊겼지라우. 청자를 맹그는 월주에는 신라출신 노비덜이 모여 사는 신라방까지 있는게 청자기술을 쉽게 들여올 수 있겠지라우. 지 말이 틀렸는게라우?” “틀린 거 하나 읊데이. 나도 인자 늙은기라. 장 공사맨치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기라. 신라땅에 청자가마를 맹근다몬 목심 걸고 바다를 오갈 필요가 읊겠데이.”

정년도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월주청자는 평민덜은 못 쓰게 막아놔부렀은게 신라에서 청자만 맹근 다몬 당나라 천하에 신라청자를 팔 수 있겠그만요.”

“두 사람 장사머리를 내가 못 따라가겠데이. 두 사람이 신라방과 신라촌을 이용해서 신라청자를 판다몬 큰 부자가 되겠데이.”

그러나 정년은 고개를 흔들었다.

“촌장님, 지는 부자보담 무장이 되고 싶그만요.”

장보고는 정년과는 생각이 달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시방과

헤어지는 마당에 월주의 신라출신 노비해방과 그로 인한 신라 땅에 청자기술이 전해지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알려주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장보고와 정년은 김시방이 주는 이별주를 한 잔씩 마시고는 왕청을 따라나섰다. 왕청 형제는 말 네 마리를 가져왔다. 네 마리의 말 옆구리에는 탐진토기가 든 대나무상자가 튼튼하게 매달려 있었다. 그러나 대나무상자를 말 옆구리에 붙이고 장거리를 간다는 것은 몹시 불편한 일이었다.

보름 후.

왕청이 말한 대로 양주에서 서주까지 쉬지 않고 갔는데도 보름이 걸렸다. 서주는 양주보다 작은 도시였다. 왕청 형제는 서주에 도착하자마자 서주 관아로 가서 절도사를 만났다. 절도사는 관아 앞의 당전에서 면담을 하지 않고 굳이 관아로 왕청 형제를 불러들였다. 서주는 양주와 달리 검문검색이 심했다. 그 바람에 말 옆구리에 붙인 대나무상자를 세 번이나 열곤 했다. 산동반도 일대를 다스렸던 평로치청절도사 이정기와 그의 아들 이남과 손자 이사도 때문이었다. 평로치청절도사 이정기는 당 덕종 때 죽었지만 그의 아들 이남은 산동반도 내륙지방에 제나라를 세웠던 것이다.

고구려 후예인 이정기가 거느리는 군사가 한때는 장안으로 가는 큰 도시들을 점령하고 당 덕종을 위협한 적이 있었으므로 서주 절도사는 이정기의 아들 이납과 손자 이사도를 토벌하기 위해 무령군을 조직해 군사를 모병해오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왕청 형제는 관아를 들어간 뒤 바로 장보고와 정년의 서주 체류증까지 받아왔다. 절도사에게 탐진 토기항아리를 뇌물로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서주 절도사는 뇌물을 좋아해서 서주 성민들에게 존경받지는 못했다. 무령군을 만들었지만 강군이 되지 못한 까닭은 공과 사가 불분명한 절도사의 인품 탓이 컸다. 따라서 무령군이 강군으로 변모하려면 절도사보다는 통솔력이 탁월한 무장이 필요했다. 왕청 형제에게 감쪽같이 선물을 받은 서주 절도사는 그제야 당전으로 나왔다. 당전에서 왕청 형제를 기다리고 있던 장보고와 정년은 자리에서 일어나 절도사에게 인사했다. 그러자 왕청이 말했다.

“무령군에 지원할라고 신라에서 온 군사덜이외다.”

“나를 위해 먼 길을 왔단 말이오? 당장 무령군에 입대하시오.”

“그래도 절도사께서 신라 청년덜 무술을 시험해보아야 되지 안 잣시오?”

“왕씨 말도 맞소. 당장 군중소장을 불러와 시험해 보겠소이다.”

장보고와 정년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서주 절도사 앞에서 자신의 창술과 검술, 활쏘기를 보여주는 기회를 가졌다. 무령군 군중소장은 얼굴이 험악했다. 얼굴에 깊은 흉터가 있었고 두 눈썹은 귀 쪽으로 치켜 올라가 위압감을 주었다. 어린 군사가 장창 두 개를 들고 와서 절도사 앞에 놓았다. 무령군 군중소장이 먼저 장창 한 개를 절도사에게서 받아갔다. 왕청이 장보고에게 눈짓을 했다. 장보고도 절도사에게 가서 장창을 받으라는 눈치였다.

두 사람은 당전 앞마당에서 장창을 들고 섰다. 그런 뒤 서로가 뒤로 돌아서 다섯 걸음을 물러섰다. 열 걸음 공간 안에서 겨루자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군중소장이 장보고를 쏘아보더니 입가에 웃음을 흘렸다. 장보고는 군중소장의 태도를 일부러 무시했다. 무술을 겨루는 데 감정은 군더더기에 불과했다. 군중소장은 반석처럼 꿈쩍 않는 장보고의 반응에 조바심이 들었던지 먼저 공격했다. 허공에 장창을 휘두르며 다가왔다. 허공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확확 났다. 군중소장의 장창이 움직일 때마다 허공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래도 장보고는 그가 바짝 다가올 때까지 한 걸음도 떼지 않았다. 정년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서 진땀이 났다. 군중소장은 장보고의 태도에 흥분한 듯 장창을 들고 몸을 날렸다.

“야아얏!”

장보고가 슬쩍 피해버리자 군중소장은 중심을 잃고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러나 장보고는 공격하지 않고 군중소장이 스스로 일어나기를 기다렸다. 왕청 형제는 장보고의 무술실력이 믿어지지 않았다. 무령군 군중소장이라면 1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수였다. 당나라 장수가 일개 신라 공사에게 나가떨어져 버린 것이다. 왕청이 중얼거렸다.

‘내레 홀린 거이가?’

장창 무술은 장보고가 단 한 번도 휘둘러보지도 않고 이겼다. 이번에는 절도사 앞에 장검 두 자루가 놓였다. 군중소장과 장보고는 장검을 들었다. 그러나 군중소장은 공격을 못했다. 공격의 허점을 파고드는 장보고의 실력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군중소장은 전략을 바꾼 듯 장보고가 선공하기를 유도했다. 그러나 절도사가 두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장보고는 무령군에 입대할 자격이 충분하니 칼을 내려놓거라.”

“예, 절도사님.”

정년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두 사람 중에 누군가는 피를 봐야 할지도 몰랐던 것이다. 정년은 활쏘기로 시험을 보았다. 임시로 군사 두 명이 과녁을 옮겼다. 활쏘기는 위험한 시험이 아니었다. 탐진 대구소 활터에서 익힌 대로만 쏘면 될 터였다. 정년은 어깨에 메고 다니는 활을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받았다. 관아 군관이 흰 기를 들었다. 활을 쏘라는 신호였다. 정년은 시위가 끊어질 듯 팽팽하게 잡아당겼다가 화살을 놓았다. 화살은 직선으로 날아가 과녁을 명중했다. 화살 꽂이는 소리가 돌멩이 부딪치듯 퍽 하고 절도사가 앉아 있는 자리까지 들려왔다. 절도사가 호상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다. 절도사는 정년이 화살을 1순까지 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령군 입대를 허락했다.

“어찌해서 신라인들 무술은 이처럼 뛰어난 것인가? 귀하들은 미구에 우리 무령군 무장이 될 것이 틀림없다!”

두 사람의 무술 시험은 싱겁게 끝났다. 왕청 형제가 장보고와 헤어지면서 두 손을 맞잡았다.

“내레 장 공사님을 성님으로 모시갓시다.”

“소개를 잘 해주어 무령군에 쉽게 든 거 같아요.”

“절도사님께서 무술실력을 직접 보았으니까네 무장은 곧세 될 것입네다.”

장보고와 정년은 무령군 군관을 따라서 절도사 관아 옆에 있는 군막에 입소했다. 군막은 평야지대에 수백 채가 늘어서 있었다. 장보고와 정년은 방을 배정받았다. 정년이 말했다.

“성님, 꿈땡키로 믿어지지 않그만요.”

“당에 와서 우리 실력을 인정받고 본께 기분은 참말로 좋아분다야.”

군막 방에는 침대 두 개가 놓여 있었다. 아궁이에 군불을 지피는 온돌방은 없었다. 잠시 후 땡그랑땡그랑 췌소리가 들려왔다. 저녁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장보고와 정년은 밖으로 나왔다. 배식을 기다리는 군사들이 벌써 길게 줄을 서 있었다. 장보고와 정년은 줄 맨 끝에 섰다.

<계속>